

선조들의 혼 담긴 ‘장도’ 체험하며 문화유산 멋 만끽

〈粧刀〉

국가무형문화재 박종군 광양장도전수교육관장 전수 프로그램 운영
26일~6월28일 매주 토요일 총 10회 진행...20명 정원 무료 진행

“선조들의 혼이 담긴 장도(粧刀)를 직접 체험하면서 애국심·효심·지조의 장도 정신을 실감하게 되는 뜻깊은 ‘시간여행’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찬란한 무형문화유산의 아름다움과 멋을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삼국시대부터 전해지고 있는 장도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광양장도전수교육관의 박종군 관장이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프로그램인 ‘장도, 두드리다’를 운영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중요무형문화재 지정(1978년)에 이어 은관문화훈장(2012년)을 받은 국내 최고의 장인이자 부친인 고 박용기 옹의 뒤를 이은 박 관장은 자신은 물론 아들도 장도 제작의 길을 걷는 ‘장인 3대’의 주인공이다.

또 부친에 이어 2011년 국가무형문화재에도 지정된 그는 국내 유일의 장도박물관인 광양장도박물관도 운영하면서 문화유산 지킴이 역할과 함께 ‘장도의 본 고장’ 광양의 명예도 드높이는데 앞장서오고 있다.

박 관장은 지난 2020년부터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민들과 장도에 관심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장도 문화를 알리고 있다.

올해는 ‘장도, 두드리다’라는 주제로 흥미롭고 유익한 체험의 시간을 갖게 됐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전통 공예기술을 장인으로 부터 직접 배울 수 있다는 점이 큰 의미가 있다.

프로그램은 오는 26일부터 6월28일까지 약 두달간 진행된다. 광양읍 매천로에 위치한 광양장도전수관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씩 총 10회 운영될 예정이다.

회당 20명 정원에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의 참가 신청은 운영 기간 중 광양장도전수교육관 방문이나 전화(061-762-4853)를 통해 가능하다. 세부 일정 등은 교육관 홈페이지(<https://jangdojang.modoo.at>) 블로그(<https://blog.naver.com/jangdojang6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 관장은 “장도는 우리 민족의 오랜 역사와 함께 해온 무형유산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장도 제



광양장도전수교육관이 올해 ‘장도, 두드리다’라는 주제로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을 전개한다. 지난해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 모습.

작의 우수성과 전통기술의 아름다움을 직접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양장도박물관은 3개의 전시관에 3대가 제작해 온 장도 수백 여점을 전시하고 있다.

박 관장은 “한 자루의 장도가 탄생하기까지 자르고, 갈고, 두드리고, 불에 달궈다가 물에 담그기 등을 수없이 반복해야 하며, 총 177가지의 공정이 필요하다” 힘든 제작 과정을 밝혔다. 아들과 함께 제

작하는 장도의 마지막 공정은 칼날인 도신에 장인의 혼이 담긴 ‘일편심(一片心)’이라는 글을 새기며 마무리 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순천 전문건설업체 법률위반 사전 예방

540곳에 안내문...신고 기한 초과·법규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 차단

순천시가 관내 전문건설업체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운영과 건설업 발전을 위해 법률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행정을 추진한다.

이번 추진 정책은 고불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관련 법규 미숙지 및 바쁜 현장 업무로 신고 기한을 넘겨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 업체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건실한 업체 발전을 위해 추진된다.

주요 준수사항으로는 ▲건설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 ▲건설기술인 배치 ▲건설업 등록기준 상시 유지 등이 있으며, 업체들이 사전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불이익 예방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시는 건설업체 540여 개소를 대상으로 주요 준수사항 안내문을 발송하고, 법무사 46개소에 건설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 안내를

진행했다. 또한, 배너를 제작하여 법원과 세무서에 비치했다.

앞으로 리플릿 등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신규 등록을 위한 업체 방문 시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에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건설업체에서 관련 법을 준수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이번 예방 행정으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건실하게 운영되어 민생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서는 전문건설업체의 건실한 발전을 위해 법규 위반 의심업체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 및 매월 수시조사를 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중대재해예방 등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다음 세대에게

여수시, 17~19일 ‘기후보호주간’...환경 정화·소등 활동 등

여수시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여문 문화의 거리 일대에서 ‘제18회 기후보호주간 여수 2025 행사’를 개최한다.

‘기후위기, 바다가 보내는 희망 블루카본’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지구의 날 기념식을 비롯 각종 부대행사가 다채롭게 마련된다.

첫 날 17일에는 시 보건소 회의실에서 최임호 한국수산자원공단 블루카본전략실장이 ‘블루카본에 대한 세계적 동향과 활용 전망’이란 주제로 특별강연하고, 이어 시청 앞 로터리에서 ‘미세먼지 저감 친환경 교통문화 캠페인’을 펼친다.

둘째 날 18일에는, 오동도에서 여수엑스포역까지 구간에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하고, 저녁 8시에는 10분간 시민들이 동참하는 소등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기관 1일 차 없이 출근하기’도 운영된다.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제55주년 지구의 날’을 기념해 탄소중립 시민행동 걷기 행진과 플로깅활동을 시작으로 오후 1시부터 여문 문화의 거리 일

대에서 기념식이 열린다. 특히 ‘어린이 환경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해 어린이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이와 함께 ▲COP33 유치 홍보 ▲자원순환 홍보 ▲건강을 위해 달리는 여수시 보건소 ▲아동학대 예방 홍보 ▲다육이 나눔 ▲캘리그래피, 스톤아트 및 씨글라스 ▲아로마 오일 제작체험 ▲포토부스 ▲친환경비누 제작 등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다음 세대에게 기후 위기로 부터 안전한 환경을 전해주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담았다”며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된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일부터 ‘나의 기후위기 극복 이야기’라는 주제로 숲속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고흥군 “청년 목소리 듣겠습니다”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25일까지 공모...정책 발굴·모니터링 역할

고흥군이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 발굴을 함께 할 제4기 고흥군 청년정책협의체위원을 이달 2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청년정책협의체는 청년정책 관련 의제 발굴 및 제안,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하는 청년 참여기구다.

모집 인원은 30명 내외로, 공고일(4월 9일) 기준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고흥군에서 거주 또는 활동하는 청년으로 청년 정책에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협의체 위원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

아 작성한 후, 고흥군청 인구정책실 청년희망팀을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이메일, 우편(등기)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선발 결과는 5월 초 개별 통보되며, 선발된 협의체 위원들은 위촉식을 시작으로 2년간 청년정책 의제 발굴과 제안, 정책 모니터링, 청년의 날 행사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이 군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제4기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공개모집에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친환경 법씨, 종자 전염병 예방위해 온탕소독 필수

곡성군, 법씨 온탕소독장 운영
농기센터, 다음달 16일까지 안내
키다리병 방제 효과 99%

곡성군이 영농철을 맞아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법씨 온탕소독’을 시행한다. 〔사진〕

법씨 온탕 소독은 고품질 쌀 생산의 첫걸음으로 쫓길 정도로 비 키다리병·도열병·깨씨무늬병·세균성벼알마름병·이삭누룩병·벼잎선충 등 종자 전염성 병해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 군은 농업기술센터에 ‘법씨 온탕소독장’을 설치하고, 내달 16일까지 운영에 들어간다.

온탕 소독을 위해서는 우선 탈망기나 소금물 정선을 통해 충실한 법씨를 선별한 뒤 완전히 건조된 법씨를 준비해야 한다.

이후 60℃ 물에 10분간 담갔다가 찬물에 20~30분간 식히는 방식으로 소독을 마친다.

소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법씨를 적정량인 10kg 이하로 나눠 그물망에 담고, 물 순환이 원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소독 중에는 물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친환경 재배 농가의 경우, 온탕 소독 후 석회유황합제(22% 액)를 50배로 희석해 24시간 침지 처리하면 키다리병 방제 효과를 99% 이상 높일



수 있다.

온탕소독장 이용을 원하는 농가는 곡성군 농업기술센터(061-360-8861) 또는 7개 면사무소(옥곡관·석곡관역)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사전 준비사항과 이용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곡성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법씨 온탕소독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필수 과정이다. 더 많은 농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병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곡성=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아침 밥 먹으면 건강 증진·우리 쌀 소비” 고흥 녹동농협 캠페인

중고생 대상 긍정 인식 확산 기대

고흥 녹동농협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아침 등굣길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 밥 먹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정종연 녹동농협 조합장과 농협중앙회 고흥군지부 홍성표 지부장을 비롯해 각 학교 교직원, 녹동농협 임직원, 사슴골 봉사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들에게 우리 쌀로 만든 김밥을 전달하면서 아침밥 먹기 홍보 행사도 펼쳤다.

녹동농협에서는 관내 중·고등학생 아침 밥 먹이기 행사를 통한 쌀 소비 촉진과 아침 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을 통한 쌀 소비 확대를 위해 실시했다.

캠페인은 지난 7일 녹동고, 8일 녹동중, 9일 도덕중에서 펼쳐져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지자체간 두번째 고향사랑 상호 기부 ‘훈훈’

구례군-광양시 소속 공무원들 350만원씩 총 700만원

구례군이 지난 11일 지역 상생발전과 상호 협력을 위하여 광양시와 올해 두 번째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를 이어갔다.

이번 기부는 구례군 보건의료원 및 농업기술센터 직원 35명과 광양시 도로과, 봉강면, 옥곡면 직

원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졌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응원과 함께 기부금 350만원씩 총 700만원을 상호 기탁했다.

양 지자체는 지속적인 교류로 우호를 다져왔으며, 올해 3월 각각 150만원씩 기탁한데 이어 연속

으로 상호 기부를 추진하여 지자체 간 우호 증진과 상호 협력의 수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김순호 군수는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례군과 광양시가 서로를 응원하는 마음이 주민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구례군에서는 기금 사업 발굴을 추진하는 등 활성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